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3월 19일(주일) 제1140호



100여 명의 성우와 연기자들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사진은 왼쪽부터 배우 한인수, 윤유선, 성우 겸 배우 장광, 개그맨 정선희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출시

100여 명의 성우와 연기자 4년 간 제작 ... '드라마 바이블' 스마트폰 앱으로 무료제공

스마트폰으로 성경 66권을 생생하게 듣는 애플리케이션 '드라마 바이블'이 나왔다. 성우와 연기자 100여 명이 무려 4년 동안 목소리 연기를 재능기부해서 내놓은 열매다.

배우 한인수(하나님 역), 배우 차인표(예수 역), 성우 겸 배우 장광(모세 역), 배우 이재룡(다윗 역), 성우 배한성(욥 역), 배우 박시은(마리아 역), 배우 엄지원(에스더와 롯 역), 배우 추상미(드보라 역), 개그맨 정선희(막달라 마리아 역) 등이 연기했다.

최정상급 성우와 배우들이 열연한 만큼 성경 인물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성경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드라마 바이블은 고증 및 신학적 기반도 탄탄하다. 교계의 수많은 리

더들이 자문을 해줬다. 임성빈 총장(장로회신학대), 홍정길 목사(지구촌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상일 교수(종신대 신약학)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드라마 바이블은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개그맨 정선희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문예란 이사장(G&M글로벌문화재단)은 "밤을 먹는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직장 동료 등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즐겁게 교제하



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앱스토어 '드라마 바이블' 검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드라마 바이블'을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드라마 바이블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면 신구약 리스트가 나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장(章)별로 나뉘어져 있다. 말씀을 2~5분 단위로 끊어서 들을 수 있다.

듣고 싶은 성경을 선택하면 오디오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플레이하면 오디오 드라마가 시작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재생시간은 100시간 남짓이다. 드라마 바이블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앱스토어 검색창에 '드라마 바이블'을 검색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와 iOS 두 운영체제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제공한 G&M글로벌문화재단은 한국과 아시아의 소외된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오디오 바이블프로

그램 'Just Show Up', 기독교 변증가 훈런 프로그램 '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장학회 장학금 전달

온누리장학회가 2017년 전반기 장학사업으로 고교생 16명, 대학생 62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온누리장학회는 매년 온누리교회 성도의 자녀들이나 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4월 26~28일 서빙고 본당 오전 10시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막 오른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제 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에드 코리 목사,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회복축제는 일반 강의, 선택강의,

저녁집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에드 코리 목사가 '회복으로의 초대',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은혜', '은혜와 두려움(동반의존 극복하기)', 박성심 사모가 '기쁨과 평강으로 향하는 문', '평강을 회복하는 길', '상처 있는 기억으로부터 기쁨과 평화로 회복되는 길'을 주제로 강의한다. 26일 저녁집회는 '기쁨을 증가시키는 길

'을 주제로 박성심 사모가, 27일 저녁집회는 '노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제로 에드 코리 목사가, 28일 저녁집회는 '기쁨과 평강을 확장하는 길'을 주제로 박성심 사모가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신청은 다음 주일(26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4월 16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는 할인해 준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2-3215-353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은 주차스티커 발부받은 차량만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양

재 온누리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와야 한다.

서빙고와 양재 두란노서점에서는 전 품목 10%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과 신앙 남양주 장경애 성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경애, 박수진 성도 부부와 아들 휘겸.

남들보다 한참 늦게 국악을 시작했다. 그래도 국악예술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한 번에 입학했다. 어디 그뿐인가. 국악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국립국악원에도 한 번에 들어갔다. 그녀의 국악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그런데 너무 쟁쟁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는 게 함정이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무대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두고두고 곱씹을 만큼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쟁쟁한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힘들었다. 기(氣) 센 사람들이 특이할 한 곳에서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아 제 발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장경애 성도의 이야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경애 성도는 점(占), 타로, 고사(告祀)를 맹신하며 살았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악이라는 장르가 무속신앙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아요. 공연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우면산에 막걸리를 뿌리거나 시루떡을 맞춰서 고사를 지내기도 해요. 저도 점 보러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토속신앙을 맹신했거든요.”

점쟁이 말을 맹신하던 그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여전히 점을 보고, 고사를 지냈다.

‘고통이 축복으로’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국악을 시작했다. 남들은 초등학생 때 시작하는데 상당히 늦게 출발했다.

“공부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예술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오를 것 같고, 마침 음악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국악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심했어요.”

늦게 출발했지만 그녀의 국악인생은 막힘이 없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교에도 입학했고, 국악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국

립국악원에도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갔다.

“포천시립예술단에 소속돼 있었는데 마침 국립국악원에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국립국악원은 자리가 잘 나지 않는 곳인데 말이죠.”

27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인간문화재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가득한 국립국악원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어린 마음에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쟁쟁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국립국악원에 다니는 딸이 부모의 자랑이었기에 그 마음을 깨뜨릴 자신이 없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무늬만 신앙인이었다.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유령성도’였다. 그런 그녀가 오죽 힘들었으면 새벽예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런데도 고약한 점 보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스승님이 국립국악원을 그만두려는 저를 점쟁이에게 데려가셨어요. 점쟁이가 안 좋은 소릴 하더라고요. 내 뒤에 할아버지가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만두면 큰일날 거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시장 바닥을 전전할 거라고요.”

점점하고 불쾌한 점괘에 옛날 같으면 흔들렸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결국 2011년 국립국악원을 나왔다.

정작 국립국악원을 그만두니 상실감이 밀려들었다. 국립국악원 단원이라는 신분이 그녀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허전함과 상실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친구가 선교단체로 이끌었다. 그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였다. 장경애 성도는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 즈음 남편과 같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

“국악 하던 사람들만 만나다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선교단체 훈련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태프로도 섬겼어요.”

그 즐거운 생활도 잠시,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 한창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 평소라면 크나큰 고난에 좌절했을 텐데, 병(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다.

“암 판정을 받고 남편을 부둥켜안고 우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라는 원망보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병생활은 힘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아프니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투병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게다가 교회 분들이 아픈 저를 찾아와 위로하고 기도해주셨

어요. 교회에 다니다말다 하던 상태였는데 순장님과 공동체 식구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와 기도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따뜻한 보살핌을 체험한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박수진 성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던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점쟁이 말처럼 남편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이만큼 자라니까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감사함으로 질병도 이길 수 있었어요.”

고통이 축복으로 변했다는 그녀의 말이 참으로 눈부셨다.

천사의 키스마크 ‘휘겸이’

신앙으로 병을 이겨낸 그녀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셨다. 바로 휘겸이다.

“다행히 암세포가 난소까지 전이 되지 않아서 임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연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험관아기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기적처럼 자연임신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주셨어요. 제 안에 신앙이 자리 잡았을 때 아이가 생겼거든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선물도 주셨다. 교회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투병생활과 휘겸이의 탄생으로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섬겨주는 모습과 휘겸이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휘겸이는 지금 ‘화염성모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왼쪽 관자놀이부터 목 언저리까지 붉은 반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생각보다 증세가 심해서 걱정이 됐다.

“휘겸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자신이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을 되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휘겸(빛날 휘, 겸손할 겸)이라는 이름처럼요.”

남편 박수진 성도도 한마디 거들었다.

“서양에서는 점을 천사의 키스마크라고 생각한대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천사가 키스자국을 남겼을까요. 그 만큼 이 아이가 예쁘고 귀해요.”

“저 보세요. 원래 우리 남편이 저런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도 자랐어요. 고통이 축복이 되었어요.”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은 일곱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 받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작은 땅을 분배 받았습니 다.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의 땅을 제비로 뽑았는데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낀 자그마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10~11절).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동서로 40Km, 남북으로 24Km되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두 지파 사이에 끼어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을 막아주는 완충지역이 되었습니다. 두 지파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극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가장 먼저 뽑는 은혜를 받았고, 자그마한 땅이었지만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두 명의 유명한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울도 베냐민 출신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와 공유하게 됨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될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에 속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두 지파의 완충지대라는 역할이 주어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모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도시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게 여겨질지라도 나중에는 결코 작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큼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늘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견디기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축복이 되고, 그 일이 사역이 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라

둘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작았습니다. 지형도 복잡했습니다. 비탈이 있고,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벧호글라, 에멕 그시스, 벤아라바, 스마라임, 벧엘, 아웜, 바라, 오브라, 그발암모니, 오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켄,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부앗, 기랏으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 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28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셨는지, 왜 넓은 땅을 받지 못했는지, 왜 비옥한 땅을 받지 못했는지를 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 사이에 끼어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이웃나라 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

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목상으로 얻어진 행복입니다. 불행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다면 진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한다면 불행도,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지키라

셋째,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경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에도 경계가 있고 건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아픔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에도 경계가 있고 정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될 경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의 경계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통해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매일 매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켜

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한 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키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속 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은 아름다운 것 같고,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탐욕, 욕심, 욕정,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숨거나 엉뚱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뒤흔들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베냐민의 땅 분배는 모든 것에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뜻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마포공동체는 노숙인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고있다.

기획 1다락방 1사역의 현황과 과제

390개 다락방 중 276개 다락방 참여

미자립교회, 이주민, 장애인, 노인, 노숙자, 청소년, 아동 섬겨

‘1다락방 1사역’이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 1다락방 1사역은 온누리교회 다락방별로 1개 이상의 사역지를 정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바보 운동이다. 이웃들을 찾아가 관계 맺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다. 2016년 온누리 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에서 선포된 이후 온누리교회 390개 다락방 중에서 276개 다락방이 실시하고 있다. 70.7%가 참여하고 있다.

1다락방 1사역은 미자립교회(44개 다락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주민(43개 다락방), 장애인(40개 다락방), 노인복지관(39개 다락방), 노숙자(31개 다락방), 청소년(23개 다락방), 아동(21개 다락방), 탈북민(18개 다락방) 등이 뒤를 이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요 사역이었다.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예배지원(129개 다락방), 식사 섬김(95개 다락방), 돌봄사역(82개 다락방) 등이 주로 실시되고 있었다. 방문주기는 월 1회(87개 다락방)가 가장 많았고, 주 1회(30개 다락방)씩 섬기는 다락방도 있었다.

1다락방 1사역을 통해 맞은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고양은평공동체 은평 1, 2, 3 다락방은 아동보호기관 은평천사원을 섬기고 있다. 한 개 다락방이 한 달에 한 번씩 은평천사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교제하고 있다. 은평천사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온누리교회 은평다락방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스스로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에서 섬기고 있는

남양주 올네이션스교회 황윤하 목사는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의 섬김은 무명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더 많은 참여와 소통 강조

1다락방 1사역이 시작된 지 1년 밖에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1다락방 1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276개 다락방 중에 92개 다락방에서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32개 다락방 성도들은 사역에 성도들 간의 소통 부재, 24개 다락방은 시간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역의 취지,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사역이 진행되었다

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사역대상자들과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방문을 권유하고 있지만 39개 다락방은 연 1회, 24개 다락방이 연 2회, 30개 다락방이 분기별 1회씩 사역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재정적 어려움, 사회선교부의 지원 필요, 공감대 형성 필요, 사역 매뉴얼 필요 등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1다락방 1사역의 완전한 정착과 시행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요구와 지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사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김영선, 조혜민 기자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이 섬기는 예봉교회.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이 섬기는 올네이션스교회.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과 요셉의 집.

1다락방 1사역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락방이 연합해서 섬겨도 되나요?

“필요에 따라 2~3개 다락방이 연합해서 1개의 사역지를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1개 사역지를 섬기는 다락방이 많다면 1다락방 1사역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매주 여러 개 순이 1개 사역지를 찾아가는 것은 사역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역지 방문 주기와 방문하는 순서를 조절한다면 1개 사역지를 2~3개의 다락방이 연합해서 섬겨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1다락방 1사역은 순헌금의 일부를 떼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헌금의 일부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다락방 1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습니

다. 각 공동체 사회선교 사역자나 사회선교 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봉사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역을 너무 자주 진행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진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1다락방 1사역은 사역대상자들과 관계 맺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락방과 사역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봉사 주기를 정할 것을 권합니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역지를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지를 정해주지는 않나요?

“사역지는 다락방에서 정해야 합니다. 1다락방 1사역은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는 사회

참여적인 사역입니다. 지역사회를 잘 알아야만 이웃들의 필요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교회나 사역본부에서 사역지를 정해주면 성도들이 1다락방 1사역을 과제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스스로 지역사회를 돌보고 이웃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관공서에 들러 독거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역 매뉴얼이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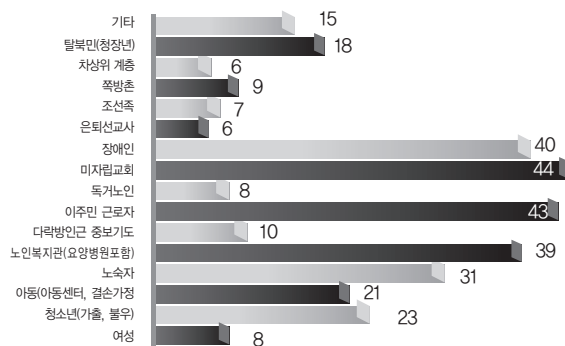
“1다락방 1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역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모여야 합니다. 다락방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는 이런 사역이 좋더라, 이주민들을 대할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한다 등 각 다락방의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사역대상, 사역방법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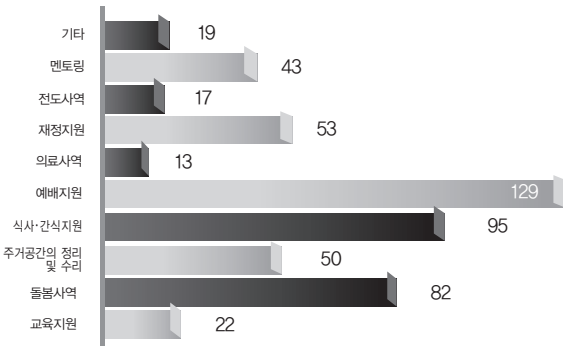
1다락방 1사역의 참여율을 높일 대안이 있나요?

“더 많은 성도들이 1다락방 1사역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1다락방 1사역의 의미와 취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다락방 1사역은 무엇을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사역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1다락방 1사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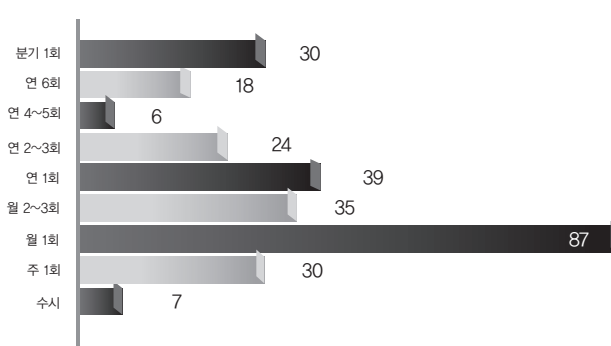
사역대상(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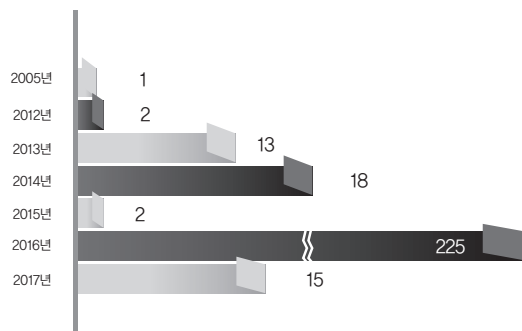
사역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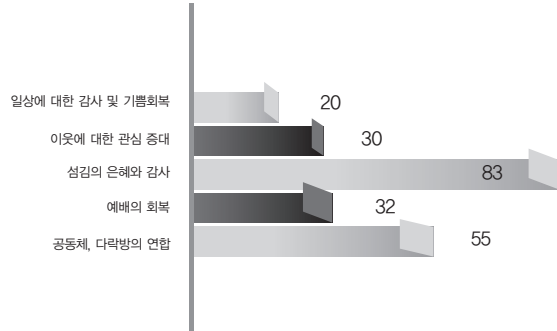
사역주기(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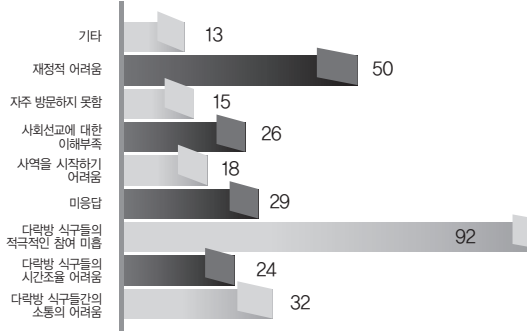
사역시작 시기(중복응답)



좋았던 점(중복응답)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김요셉 선교사
(안디옥열방교회 담임목사)

안디옥열방교회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이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6일을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주일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

아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피로보다 마음의 아픔과 피로를 달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정입니다. 온누리교회 동대문중앙공동체 믿음, 화평, 사랑다락방이 안디옥열방교회에 찾아와 이주민들의 가족이 되어 사랑과 정을 나누어줬습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믿음, 화평, 사랑다락방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민 형제자매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 해가며 대화하고 교제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했을 뿐인데 이주민 형제자매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통

한 것 같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이주민 형제자매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믿음, 화평, 사랑다락방 성도들은 무슬림권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믿음, 화평, 사랑다락방과의 만남이 안디옥열방교회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올해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예배시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교제가 풍성한 식사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시간에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과 특수를 포함하고,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운영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동대문중앙공동체 믿음, 화평, 사랑다락방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다락방 1사역이 국내 사회선교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교회 사역, 너희 교회 사역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 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1다락방 1사역이 한국 교회에 더 알려져서 더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섬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양, 힘든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규성, 백현미 부부에게 듣는 입양절차와 고민

입양.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입양하기까지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남들의 시선도 이겨내야 한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힘든데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는 소리마저 들어야 한다.

그래도 입양을 선택한 부모들이 있다. 그들은 입양은 ‘특출 나게 선택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입양은 그렇게 힘든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좁혀주는 사역팀이 있다. 사회선교부 소속 ‘제이홈사역팀’이다. 제이홈에서는 입양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자조모임을 열어 함께 성장하는 시간도 갖는다. 두 자녀를 입양한 이규성, 백현미 부부(이수공동체)에게 자녀를 입양하기까지의 절차와 고민에 대해 들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입양 후 하나님 마음 깨달은 이규성, 백현미 부부.

이규성, 백현미 부부는 결혼 10여 년 만에 이뤄오던 입양을 결심했다. 그렇게 예은이를 만났다. 이 부부는 연애할 때부터 입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내 백현미 성도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임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출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깐 신혼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오래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결혼생활은 정말 달콤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둘이 사는 것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축제에 참석했던 아내가 프랜시스 찬 목사의 강의를 듣고 다시 입양을 생각했다.

“실제로 입양을 하고 이웃들을 보살피는 프랜시스 찬 목사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선택한 일도 하고 싶었고, 입양도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입양 기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 온 가족이 부모 되기

입양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10단계 검증 절차를 걸치고, 20여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입양특례법 외에도 각각의 입양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양에 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사회선교부 제이홈사역팀에서 입양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마음을 굳혔다. 본격적으로 입양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아내가 입양절차에 대해 알아본 다음 결정하자고 했어요. 사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였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입양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지금도 행복하네 괜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염려를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입양을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요. 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양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관도 있었거든요. 체력을 키우면서 입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부부가 부모가 되는 과정은 까다로웠다.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았다. 소득증명도 해야 했다. 그렇게 입양허가를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다.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부모로서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이뤄진 절차와 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첫째 예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였다. 입양할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보육교사가 방문해서 양육의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도 해준다. 온 가족들이 열과 성을 다해 예은이 키우기에 동참했다. 그 덕분에 아내 백현미 성도가 우려했던 체력적인 부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어버님, 시누이, 남편이 번갈아가며 예은이를 돌봤어요. 제가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요. 가족들의 참여가 큰 격려가 됐어요. 육아에 힘써주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2015년 3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호적에 예은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2. 자녀는 하나님이 키운다

나이 40이 넘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예은이를

키우며 얻는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낳아서 키우던 입양해서 키우던 다르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은이가 말을 하고, 걸음마를 땔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규성 성도는 예은이를 키우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고백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헌신적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예은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예요.”

입양을 준비할 때 걱정했던 것과 달랐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았다. 둘이 지낼 때보다 셋이 되었을 때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커졌다. 내친 김에 둘째 하은이도 입양했다.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은이가 의지할 수도 있는 친구 같은 자매가 있으면 좋잖아요. 셋째도 입양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 셋째는 부담이 되나 봐요(웃음).”

둘째 하은이를 입양할 수 있던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은이는 완전 천방지축이에요. 혼자 잘 놀고 낮도 안 가려요. 하은이는 예민한 편이에요.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고 잘 때는 얼마나 치대는지 몰라요. 성향이 전혀 다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는데, 아이들은 정말 잘 크더라고요. 진짜 아이는 하나님이 키운다는 말이 실감나요.”

3. 자연스럽게 입양 사실 알게 된다

이규성 백현미 부부에게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입양한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다. 자녀들에게 언제 입양

사실을 공개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종종 드라마에서 “내가 입양된 거였어?”라며 충격에 빠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갑작스러운 입양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에 빠지는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모습은 말 그대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최근 입양은 공개입양으로 진행된다. 호적 및 각종 서류에 입양 자녀임이 표시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다. 입양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이 원하면 친모를 추적할 수도 있다. 보통은 자녀가 6살 때 입양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자녀의 정서수준에 따라서 입양 공개시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자녀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바로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이홈사역팀에서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교류, 부모들 간의 교제, 자녀들 간의 교제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 6가정이 함께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며 입양이 특별한 게 아니란 것을 알아가고 있고요. 자녀를 입양한 가정이나 입양을 생각하는 가정이 있으면 제이홈사역팀으로 오세요.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 훨씬 좋아요.”

제이홈 '입양 전 세미나'
오늘(19일) 오후 5시 서빙고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내용: 입양 절차, 입양 가정 간중
문의: 010-2049-8210

새롭게 선보이는 강의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정서’와 ‘영성’의 균형을 위하여

서빙고 화요일 3월 28일, 양재 주일반 3월 26일 개강

회복사역본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과정을 선보인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바탕으로 만든 훈련 프로그램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묵상을 통해 정서와 영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 ‘건강한 교회세미나’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이 열리게 된 모태다. 그해 12월부터 1년 동안 온누리교회 전임목회자 부부 14명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로부터 이 훈련을 받았다. 이기훈 목사, 최용준 목사, 오민 목사도 훈련을 받았다. 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의 필요성과 유익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다.

/ 이소정, 조혜민 기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훈 목사(이하 이):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도 알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98%는 분명 달라진 것 같은데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 부족함이란 삶의 만족도, 행복도, 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분명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오민 목사(오): “그동안 영적인 면, 지적인 면, 행동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자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삶의 전체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감정도 성숙해야 합니다. 감정이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표현하는 방법과 이를 건강한 영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용준 목사(이하 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서와 영성이 균형을 이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성숙하게 해결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보다 분명하고, 공손하게 요청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건강한 영성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 안식하는 것,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강사

이기훈 목사
(이)오민 목사
(오)최용준 목사
(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 진단

1.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2.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은 즉시 억누른다.
3.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왠지 사치라고 생각한다.
4. 발목을 잡는 과거를 덮어 두려고만 한다.
5.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칼같이 나눈다.
6.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7. 사람과의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
8. 상처, 약점, 실패는 철저히 은폐한다.
9. 내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10.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10가지 척도 중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성도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으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 “내안에 감추고 덮어 두었던 연약한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나의 건강한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 자유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연약함에서 자유해졌더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대화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단정했다면 이제는 아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졌

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훈련입니다. 부정적인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회복사역이 강의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묵상과 나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40일 동안 일상에서 날마다 3번 묵상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비추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과 묵상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주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 “맞습니다. 여기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가 강조하신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 과 교회 사역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매우 낮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만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이 훈련을 통해 오랫동안 가져온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름이 왜 일어나는지, 신앙인으로서 왜 저렇게 사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힘든지에 대한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 부족한 2%를 채우십시오. 100% 건강한 영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영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부가 같은 주제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관계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도(道)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참된 제자로 깊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시면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
과정: 서빙고 화요일, 양재 주일반
일시: 서빙고 화요일 3월 28일~ 5월 16일
오후 7시30분 온누리 기록문화전시장
양재 주일반 3월 26일~ 5월 14일
오후 4시 양재 도곡교육관
신청: 아이스콜, 회비 5만원
문의: 02-3215-3532

최후의 보루 ‘군선교!’

1년 동안 6,800km 이동, 장병 2만 명에게 복음을



▲ 지난 2월 18일 5사단 신교대 세례식.



▲ 지난해 5월 28일 논산 훈련소에서 진행된 진중세례식.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2005년 8,446천명에서 2015년 9,676천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도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로 증가했다.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차세대와 청년 종교인구 감소가 눈에 띈다. 연령별 분석 결과 종교가 없는 20대가 64.9%, 10대가 62%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인구 감소도 원인이겠지만 차세대와 청년 전도의 통로가 닫힌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청년 전도가 흔들리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전도 활동이 금지되고,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채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 필요하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그래서 군선교가 최후의 보루다. 아직 군선교 덕분에 청년 전도의 통로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20~24세 남자 인구의 절반인 약 63만 명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은 곤고해져 있는 상태다. 어디하나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쉽터이자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군대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부

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군교회와 협력해서 각 군 사관학교와 신병훈련소, 전방부대를 찾아가고 있다. 연 30여 차례 방문을 통해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 장병 8,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논산훈련소 1회 5,300명, 5사단 3회 800여명, 해군교육사 1회 1,000여명, 공군교육사 1회 300여명 및 기타부대 등). 군선교팀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만 해도 6,800km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7.5회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다. 이들이 있기에 청년 전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

물론 군선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직도 군부대에 무목교회가 많다. 전도집회와 위문행사에서 소외된 부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생명의 삶>으로 새벽예배와 큐티를 하는 부대에서 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

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목과 군 장병들이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을 타 타종교의 전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무슬림들도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40%가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는 8%라는 통계가 있다. 타종교들은 군 장병을 전도하기 위하여 비싼 간식과 선물, 오락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부대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군부대 교회에서는 군 장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찬양가수 활용과 타종교의 간식 및 선물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외에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선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다녀가기만 했을 뿐인데 군교회가 부흥하고, 장병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306보충대 전도집회에 참석하고 3사단에 배치 받은 장병 200명 중에 197명이 세례를 받았고, 2015년 군선교팀이 해군교육사에서 전도집회를 실시한 이후 150여 명이던 예배인원이 900여명으로 증가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집회를 개최한 군부대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청년들이 생겨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선교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품고 군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의 바람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아무리 청년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다.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젊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신영섭 총무(010-2208-0881)

김혜수 간사(02-3215-3214)

바다에서 온 편지

지난 3월 8일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서 CCM사역자 애드, 초롬과 함께 진해 해군교육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매년 진중세례식을 후원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진해까지 직접 방문해주셨습니다. 한화수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과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장병들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해군 선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해군 장병들은 23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을 배에서 생활합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은 더 많은 함정근무를 해야 합니다. 몇 주 동안 출동을 나가서 높은 파도와 뱃멀미, 굶은 날씨를 견디는 것이 일상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느끼는 갑갑함과 외로움 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독교 장병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다 한 가운데는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예전부터 ‘함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의 식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군종목사님들의 수가 워낙 적어 배에 함께 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교와 부사관 때로는 병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배의 사정이 좋아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그룹으로 성경책과 찬송가를 펴놓고 큐티 나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해군교육사교회는 육군의 논산훈련소처럼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군의 모든 장교, 부사관, 병사가 실무에 배치되기 전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이 시기 장병들의 신앙양육을 책임지는 곳이

해군 장병 선교를 위하여

기도 합니다. 훈련병 때 불신자를 전도하여 세례를 주었다면 후반기 교육 때 기초 신앙을 양육합니다.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던 장병들은 각 함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주력부대가 대부분 진해지역에 있다 보니 서울, 경기지방의 많은 분들에게 해군이 조금은 생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입대 전까지 해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해군 선교에 대한 지원과 기도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군 장병 선교를 위해서, 함상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외로움과 고독, 좌절을 경험하며 이겨내고 있는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특히 해군 기독교 장병 양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해군교육사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물질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식과 성경책, 전도지, ‘함상예배’를 위해 큐티집, 설교 영상 후원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늘 국내외 여러 선교사역 분야에서 앞장서서 귀한 섬김을 보여주시는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 선교 사역의 마지막 보루인 군선교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승!



최믿음 목사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교회)

온누리호스피스에서 온 편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

손순애 권사와 양대일 형제의 눈물로 쓴 간증



서울삼성병원 기독교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손순애 권사.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과 아들을 간병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처절하기 그지 없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조차 없었다. 그 어머니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17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요양 병원에 있고, 아들은 좌측 몸이 마비되었다. 그런데도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단다. 변한 거라곤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말이다. 서울삼성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숙 목사가 손순애 권사와 양대일 형제의 간증을 글로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주

출근했더니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목사님, 우리 대일이가 만성신부전으로 입원했어요. 투석을 해야 해서 혈관 수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쪽지를 보자 17년 전 손순애 권사와 양대일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했었다. 앞친 데 댔치고, 댔친데 또 댔친 상황이었다.

17년 전, 한 아주머니가 퉁퉁 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통곡하면서 기독교실로 들어왔다. 얼굴을 가린 두 손으로는 도저히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한참 울고 나서 대화를 시작했다. 정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1급 장애인이었다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전신 마비가 된 남편은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부터 이 아주머니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 시키고, 병원에서 쪽잠을 잤다. 말쑥한 집 놔두고 병원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지냈다. 남편이 건강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온갖 불편함과 서러움을 겪었다. 도저히

글로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남편은 오랜 시간 병원생활을 마치고 요양원에 갔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그냥 놔둘 수 없어 사업체가 있는 군산으로 만아들을 내려 보냈다.

29세의 젊은 만아들이 잘할 것 같았는데 사업경험이 없었던 만아들에게 사업체 운영은 무척 힘든 일이었나 보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심적 고통을 만아들도 겪은 것 같다. 만아들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삼성병원으로 실려 왔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졌다. 아들을 응급실에 눕어놓고 터져 나오는 설움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다. 체면 따위는 내려두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한 아저씨가 기독교실로 인도했다.

예수를 만나고...

“어머니 이곳에서는 평평 울어도 됩니다.” 그 안내가 어머니를 하나님 앞으로 깊이있게 이끌어오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외에는 기독교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조금씩 복음을 알아갔다. 스펜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슬픔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의 눈빛에서 생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통으로만 가득했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수를 만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양대일 형제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혼수상태에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다. 그 형제 귀에 대고 시편 23편을 외어 주고 대답 없는 대화를 이어 갔다.

“어머니가 슬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형제가 누워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형제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대일 형제를 살릴 거예요.”

양대일 형제와 나는 5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아마 그 형제와 어머니에게 이 5개월이 5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느 날 양대일 형제가 눈을 떴다. 그런데 눈을 떴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신체는 조금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일반 병동으로 이실했고, 어머니의 기도는 더욱 깊어져 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밥을 먹이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숨 돌릴 틈도 없어 보였다. 그 상황에서도 아들이 잠들면 기독교실로 내려와 기도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주일이면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한 양대일 형제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한 주도 빠짐없이 본관에서 별관까지 휠체어를 끌고 와 아들을 예배로 인도했다. 어머니의 간절함은 주님만 아실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일 형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리나케 찾아갔더니 양대일 형제가 나를 보며 한 말이 아직도 선명하다. 참 위트 있는 멘트였다.

“모옥사님 머었지세요. 눈 뜨면 모옥사님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뚜웅똥 하 시군요.”

최고의 희망이자 소망

남편은 아직도 요양병원에 있고, 아들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

던 어머니가 이제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병원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당시 병원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이제 불광동 은광교회 권사가 되었다. 세 자녀 모두 예수를 만났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그 모자는 종종 서울삼성병원에 다녀갔다.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했고, 가끔 입원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대일 형제의 몸이 좋아졌다. 좌측 몸은 여전히 마비상태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또 다시 병원생활이 시작 되었다. 양대일 형제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긴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목사님 제가 아프고 나서 사람이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부활과 환희를 경험한 손순애 권사와 양대일 형제 모자는 어떤 시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양대일 형제가 퇴원하고 몇 년 지난 어느 날, 직원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실에 들렀다. 저녁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기독교실 한 칸에 마련된 작은 기도공간에서 손순애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기도가 그치기를 한 시간을 기다렸다. 퇴원 후에도 마음이 힘들거나 은혜가 사모 될 때 한결음에 달려와 한참을 기도하고 가기를 수없이 반복 했다고 한다. 아무도 없을 그 깊은 밤에.

지금도 손 권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그곳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품 같이 좋아서 지금도 가고 싶어요.”

손순애 권사님과 양대일 형제는 이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여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자 소망이다.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참다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된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미끄러운 말을 하지만 위장된 거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뒤통거리는 아들을 부축하고 투석실로 향하는 하나님의 딸 손순애 권사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김정숙 목사 (서울삼성병원 선교, 온누리호스피스 담당)



여성사역의 무릎선교기도학교.

서빙고 여성사역 평일 저녁 프로그램 신설

북클럽, 일터영성, 바이블 클럽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직장여성들을 위한 평일 저녁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북클럽, 일터영성, 바이블 클럽이 바로 그것이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8주 동안 진행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디오 책임기 소모임 그룹 ‘북클럽’이 막 오른

다.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뉘어 실시된다. 화요일은 <딤후 2장의 탕부 하나님>, <기도>를 교재로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목요일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교재로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어진다.

수요일에는 일터에서의 고민과 문

제를 성경적 원리로 풀어나가는 소그룹 모임 ‘일터영성’이 열린다.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나누는 성경공부 모임 ‘바이블 클럽’이 실시된다.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차세대 교사 모집

서빙고 30명, 양재 36명, 도곡교육관 12명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서빙고 유치부 15명, 소년부(초등학교 5~6학년) 10명, Y고등부 5명, 양재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20명, 중등부 16명, 도곡교육관 영아부 7명, 초등부(초등학교 3~4학년) 3명, 고등부 2

명이 필요하다. 오늘(19일)과 다음 주일(26일) 서빙고는 본관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차세대실로 문의하면 된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여야 한다. 교사사명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사사명교육은 서빙고는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 301호에서,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570-7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안산M센터에서 열린 댄스강좌.

토요문화강좌 강사, 스태프 모집

안산M센터,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안산M센터 토요문화강좌를 섬겨 줄 강사와 스태프를 모집한다. 토요

문화강좌는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주 동안 안산M센터에서 진

행된다. 댄스, 피아노, 기타, 드럼, 메이크업, 한국요리, 꽃꽂이, 컴퓨터, 탁구, 바둑교실 등이 실시된다. 특히 댄스, 피아노, 기타, 드럼 강사와 스태프가 많이 필요하다.

강의는 오후 3시 30분과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한국요리는 오후 3시 30분에만 진행된다. 봉사는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섬기면 된다.

차량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한양대학교 안양캠퍼스, 산업기술대학교, 안양대학교와 안산M센터를 오가는 차량운전 봉사자를 찾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다락방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섬길 수도 있다.

문의: 김재현 팀장
010-2724-4563
양옥진 전도사
010-3937-3927

/ 이소정 기자

워십콰이어, 온사랑합창단 단원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 4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워십콰이어 찬양사역팀과 온사랑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워십콰이어 찬양사역팀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은 매월 넷째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형제는 ‘주 여호와와 광대하시도다’, 자매는 ‘부르신 곳에서’를 준비해 오면 된다. 온사랑합창단은 만 13세부터 만 3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자유곡 1곡을 선정해서 오디션에 참가하면 된다. 온사랑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연습하고 있다.

문의: 워십콰이어 010-2111-4657, 온사랑합창단 010-8784-6635

프리덤스쿨 17기 수강생 모집

회복사역에서 프리덤스쿨 1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3만원. 문의: 강태욱 총무 010-9001-6714

‘WHY 무슬림’ 3기 개강

‘WHY 무슬림’ 3기가 개강한다.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콘서트홀(지하2층)에서 진행된다.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이나 주일 접수데스크. 회비 5만원. 문의: 010-5378-7140, 010-4229-0580

온누리선교학교 시니어미션 개강

제 2기 온누리선교학교 시니어미션이 개강한다.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1~6주)과 비전홀(7~8주)에서 진행된다. 50대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비 5만원 입금(기업은행 276-075575-01-011) 하고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10-3377-5167

CGNTV 기획세미나 ‘육아맘을 위한 공감톡’

CGNTV에서 ‘육아맘을 위한 공감톡’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내일(20일)부터 4월 24일까지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훈육과 체벌의 차이, 자녀와 공감대 형성하기 등을 주제로 박재연 Re+리플러스 대표가 강의한다.

아이와 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대상이다. 이메일(danyoul@naver.com)로 이름, 휴대폰 번호, 참여인원을 기업해서 보내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3275-9538

▶ 바로잡습니다

- 지난 3월 5일자 신문 10면에 보도된 대학청년부 마포 홀리스타 장소가 ‘마포역(5호선) 1번출구 e편한세상 지상 1층 하우스렌 카페’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지난 3월 12일자 신문 6면에 실린 송지원 교사(서빙고 유치2부)의 인터뷰 내용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강의가 인상 깊었다”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3월 26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1월 15일~3월 11일 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정은경	관악금천 김선혜 백원성	동작 차근환	신준혁 이정우 이종희	이진희 양천 옥선화	맹호규 신기섭 신도미	중종로 심희진 정용환	S브릿지 고혜진 구보경
강촌 박수진	윤혁중 이지영	마포 김진숙	성북 권미애	이태영	이수 양옥진	한강 유기희	김시내 김정연
유 역 이 준	이춘련 최선수	북누리 박수련	영등포구로 김석주	김소연	이강 유기희	윤혜자	김찬숙
임영미	황태용	유 청	강남 김소연	유신우	일산 강희정	이은용	김한나
고양은평 강완주	광명 방순영	성동광진 김미진	신용산 변계동	오현숙	이준	정세화	서정민
남광현		남검필 송태하	이성민	용산 강가림	이준	정세화	엄태정
						채영희	한승범

제1140호 | 2017년 3월 19일(주일)

■ 헬로맘스쿨을 섬기며



/ 이현정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젊은 엄마들을 위한
‘하나님의 스쿨’

나는 6살 쌍둥이 엄마이자 믿음을 가진 가정의 아내다. 이 고백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 헬로맘스쿨을 처음 찾았을 때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7년을 기다려 낳은 귀엽고 사랑스런 두 딸과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둔 다복한 여인이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다. 귀하게 얻은 두 딸을 방치하고 있었고,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다. 산후우울증으로 삶이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았다. 매일 죽음을 목상하며 ‘내일은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교회를 해마다 헬로맘스쿨 광고를 보고 무작정 등록했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거스르며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바로 순종이 되지 않았다. 매주 헬로맘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교만이라는 죄가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늘 두렵기만 하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 조원들과의 나눔과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스쿨을 마치고 스테프로 남겠다는 마음도 주셨다. 무엇보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만나주셨다. 우리 부부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뜻을 합치게 되었다.

스테프들과의 나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었다. 헬로맘스쿨 스테프 모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사역하고 있는 자매들이다. 아이를 업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육아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동역자들이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육아에 지치고, 세상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자매들이 헬로맘스쿨을 통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이들과 가정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세워지기를 바란다. 헬로맘스쿨은 젊은 엄마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스쿨이다. 헬로맘스쿨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완준, 반소령 부부(내수동교회)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른다. ‘너무 바쁜 일상’이 그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결혼과 동시에 1순위에서 밀려나버렸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생활에 열심이었다. 신혼생활도 없이 찾아온 첫째 아이의 출산, 자녀를 양육하면서 찾아 온 바쁜 일상이 반복되었다. 쉴 틈이 없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도,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생활이 되었다. 자녀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나의 영혼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나의 영과 육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시어머니의 투병생활까지 더해지면서 나의 체력은 ‘0’이 된 것 같았다. 나름대로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고통스러운 생활은 나의 게으른 신앙으로 받게 된 벌인지 등의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나를 안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결혼 생활에는 함께 하지 않으신지 궁금했다. 이런 질문들이 모여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41기 젊은부부학교에 신청했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꼈다. 그 중에서도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의 결혼생활에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7년 동안 아프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다. 이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를, 우리 가정을 계획하신 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가까워질 것이 기대된다.

문의: 조동화 총무(010-2578-9861)

■ 중등2부 일본 아웃리치 간증



/ 송은빈 학생(서빙고 중등2부)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

일주일 동안 중등2부 친구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짧은 봄방학 중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뺐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만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부터 학업에 대한 생각까지 더해져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에 가기 전에 “그곳을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내가 밟은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일정에 임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한국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직접 친구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한국문화 교류 시간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했다.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를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노력했다.

드디어 한국문화 교류 시간이 됐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무려 29명이나 와 있었

다. 내가 진심을 담아 나눠준 종이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것을 보고 어른들이 말하는 결실이 맺힌 것 같아 기뻐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본 친구들이 K-POP에 관심을 보였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것으로 소통했지만 그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나는 아웃리치 기간 동안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었다. 마지막 날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동안 그들을 미워하고 나 혼자 힘들어한 것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께 냉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낮아지고 배려하는 것을 배웠다.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뜻 깊고 귀했다.

■ 입교 간증



/ 조은비 자매(평택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의심 없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QT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의심이 생길수록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다. 어려울 때만 말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었다.

친구들의 옳지 못한 행동도 방관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마음 터놓고 지낼 친한 친구 하나 없었다. 어울려 다니는 몇몇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진학 할 고등학교를 정해야 할 때가 왔다.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오펜가 다니는 공동체비전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결국 공동체비전고에 입학했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 룸메

이트와 맞지 않아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전학을 생각할 정도였다. 입학하고 얼마 후 학교에서 전체 기도회가 있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라 도망갈까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도실에 틀어 놓은 찬양이 들려왔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쉬지 않고 눈물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1시간 넘게 기도했다. 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기도실에서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왔다. 힘든 일도 버티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노트를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다. 입교를 통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

순장칼럼

바로 그 자리



김성진 집사
(영등포구로공동체 사랑2순)

18년 전, ‘김포순’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정의 모여 순예배를 드렸던 때가 생각난다. 매일 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겼던 것 같다. 순장으로 섬기면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다. 하용조 목사님이 “순예배는 축제”라고 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매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순예배를 축제로 만들 수 있을지 고심했다. 순원들의 생일파티, 야외예배, 고난주간 영화감상, 불우이웃 시설방문, 미자립교회와 함께 새벽예배, 노방전도,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택에 몰래 쌀자루를 놓고 오기 등 수많은 축제들을 만들었다. 그 순간들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매주 순예배가 기다려졌다. 그때 함께했던 3가정이 1년 만에 12가정으로 늘어났다. 순에서 선교사 파송식도 하고, 권사님의 손녀 돌잔치 예배도 인도했다. 지금이라면 엄두도 안 날 일들을 일개 순장이었던 내가 감당했다. 앞뒤 분간 없이 달려다. ‘순은 곧 작은 교회’ 라면서 순장이 때로는 목자도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용기를 얻었다.

올해 공동체에서 다락방과 순이 개편되면서 리더십이 절대 부족해졌다. 내게도 순장직분이 맡겨졌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추천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기다렸지만 나서지 않았다. 결국 마감을 앞두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벽예배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순장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장으로서는 순원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순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순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순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섬겨야 겠다고 다짐했다.

18년 전 일을 회상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실현하기로 했다.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매주 순예배가 기다려지도록 애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모인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내가 김포순에서부터 함께 했던 여성 순원들을 위한 큐티나눔방을 부활시켰으면 한다. 순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순원들의 취미도 공유하고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여성 순원들과는 말씀을 통한 식탁 교제를, 남성 순원들과는 봉사과 취미 생활로 교제하고 싶다. 순원들의 기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나의 이런 생각들을 첫 순예배 때 순원들과 나누고 상의했다. 순장 혼자 만들어가는 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순예배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1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순예배를 생각하면 떨림과 설렘이 있다. 왜냐하면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 설레는 순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기를, 우리 순원 모두의 가정에서 순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대학청년부 대표MC 기고

담대함과 기대함



이승혁 대표MC
(여호수아공동체)

지난해 9월말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 대표MC로 부르심을 받았다. 10명의 MC들과 교역자들을 도와 공동체를 섬긴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목사님께서 나를 대표MC로 부르실 때만 해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때마다 부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느라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전도집회, 윈터캠프, 크리스마스 블레싱, 리더쉽 수련회 ‘더원’ 등 공동체의 많은 행사와 사역들이 있었다. 사역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 열린 여호수아공동체 전도집회가 기억에 남는다. ‘프로포즈’를 제목으로 열린 전도집회는 좋은 게스트들이 참석하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다. 전도집회에 친구를 초청한 친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상황은 이랬다. 초청한 친구가 미리 스케치북에 교회에 난생 처음 올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써 놓았다.

게스트의 찬양 간주가 흘러나올 때 그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며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달했다. 한 영혼을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초대된 친구들에게 스케치북을 넘기며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그때 전도집회에 초대되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전도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최근 크리스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청년들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매주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공동체 섬김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치유되고 고쳐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귀한 MC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다. 그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 막연하게 두려웠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주님께서 담대함과 기대함을 주셨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된다. 5월 말에 진행될 카운트다운과 여름 아웃리치가 벌써 기다려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청년부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된다. 나를 여호수아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때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수아공동체의 비전인 3,0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선교사를 허락하실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는다.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 화이팅!

전문가 칼럼



정부는 집사
(스마트사역팀장, 유니섹(주) IoT사업부 상무)

컴퓨터와 같은 IT(정보기술) 기기가 발전하면서 누구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했던 정보를 이제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평등시대’를 맞이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터넷 미디어가 무섭게 성장했다. 신문이나 잡지, 도서의 판매 부수가 현격히 줄고, 인터넷 구입이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자동화 열풍이 불었다. 공장에 인간 대신 로봇이 설치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2013년 뉴욕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간당 7.25달러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더 빠른 속도로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모멘텀 머신 사는 지난해 고기를 뒤집어가며 구운 후 아재와 마요네즈를 얹어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선보였다. 이 기계는 시간당 360개의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듯 로봇과 자동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확히 시킨 대로만 일하면서 지치지 않는 자동화기계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미국에 있는 직업의 47%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체노동을 하는 근로자 둘 중 한 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비관적 예측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빼

4차 산업혁명과 크리스천

놓을 수 없겠다. 대국 6개월 전의 알파고는 아마 4단을 겨우 이길 수 있는 실력이었다.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 이후 더 강해졌다.

현재 인공지능 목표는 인간 두뇌를 모방하거나,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고 한다. 4차 산업의 대표적 분야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통신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 예측한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끼리 통신하는 시대가 도래 하겠다.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 나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

습니다”(창 2:15).

지킨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은 에덴동산만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다. 아내를 짝지어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게 하셨다.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지킴의 핵심은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늘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과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센서를 만들고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스마트사역팀 IT 동역자 모집〉
문의: onnurismart@gmail.com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진정한 친구, 절친을 사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야 해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열어젖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자신의 관심사, 취미, 감정, 시간을 아낌없이 공유해야 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정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아 우정관계를 맺은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대하 20:7),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아홉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사 41:8).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관계까지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한 배를 탄 경험 때문이었어요.

우정(friendship)이라는 단어는 ‘친구(friend)와 같은 배(ship)를 탔다’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친구 간에 모든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때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남모를 감정과 경험이 공유되어 있었어요.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창 22: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봐도 너무 황

당하고 잔인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끔찍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처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맨붕에 빠졌을 거예요. 몸 부림치며 꼬박 밤을 지새웠을 테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출발해요.



후안 드 발데스 릴(Juan de Valdes Leal)의 이삭의 희생(The Sacrifice Of Isaac).

(창 22:3). 돌쇠 같은 하인 둘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떠나요. 그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을 겨냥해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불려요(창 22:11).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순종에 하나님도 다급하게 반응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쇼(show)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인 매정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아들도 아닌 독

생자(獨生子)를 죽인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나친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킨 것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요일 4:9).

죄에 갇힌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택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나요? 십자가의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어둠이 뒤덮은 것은(마 27:45)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

늘 향해 절규하는 외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잘 공감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는 하나님 곁에서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이가 있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이미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곁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같은 배를 타 본 경험이 있었고, 이 둘은 같은 감정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것이 어찌면 너무도 당연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 15:13)고 하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요 15:15)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절친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선 무엇이 요구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할만한 우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해요.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기쁨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통일칼럼

통일을 준비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가장 시급한 교육은 탈북자 전문 지식인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하는 로드맵은 지향점만 알아서는 만들 수 없다. 북한의 현재 상태로 알아야만 만들 수 있다. 현재 독일 총리 메르켈도 동독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1950년대 수백만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피난 나올 때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가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독에서 자라났다. 그 결과 메르켈은 동서독을 모두 잘 아는 사람이 되었고 통일 이후 독일의 이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총리뿐 아니라 사민당 당수, 연방하원의장 등도 동독 출신 인사들이다. 남북한 통일도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야 통일이 완수될 수 있다. 남한에는 이미 3만 명의 탈북민이 와 있다. 그들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들도 상당수 있다. 그들은 북한 사정에 도 밝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

제도 몸으로 익힌 분들이다. 교회는 그들이 통일 이후 시대를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의와 사랑에 입각한 평가가 북한 땅에 정착될 수 있다.

되돌아보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안창호, 이상재, 김구, 조만식 등 크리스천 리더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북한 재건에도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일대일로, 순예배로, 남북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전문분야에서 탈북자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한다.

교회는 통일 후 교육도 준비해야 한다.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독일도 서독과 동독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어려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보다 더 심각하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통일이 되었지만 남북은 독일의 두 배 가까이 분단되어 있고, 동서독은 자국민끼리 싸우지는 않았지만 남북은 끔찍한 전쟁을 했었다. 동서독은 통일되기 20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을 공유했기 때문에 의식차이

교육을 통해서만

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도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또 동독은 통일 전에 세계 10위 공업 국가였다. 하지만 북한은 훨씬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만 민족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만 국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동독은 통일 후 서독 교과서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선생들은 새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들을 무시했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새 이념과 새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동독시민들이 2등 국민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성취욕을 상실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동독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폭력적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한 교사들이 북한으로 올라가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북한으로 올라갈 것인가. 동독의 열악한 의료보전, 전기통신, 자녀교육 때문에 서독 선생들도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 결국 크리스천들이 올라가야 한다. 통일 후 북한 각 곳에 미션스쿨이 세워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미리 바꿔야 한다. 교육방송 EBS의 다양한 강의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탈북자들을 세우는 교육, 북한 교사,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있을 때 남북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다. 그 래야만 북한에서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고, 통일한국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것이다.



고건 장로
(통일위원회)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뎀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동(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인천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모집: 재정 및 행정담당 전임간사 1명(남)

문의: 박창홍 간사(032-437-9686)

성인 창조과학스쿨

일시: 4월 16일~5월 28일 주일 오후2~4시

대상: 교회 성도 및 공동체

장소: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서빙고 꿈이아놀이터 모집

기간: 3월 29일~6월 7일

시간: 수요일 오전 10:40~오후 12:40

대상: 20개월~36개월 영유아

장소: 선교관 2층 꿈이아놀

회비: 15만원(입금전착순)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이아놀이터 교사 모집

분야: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채용 공고

모집: 서빙고 커피숍 직원, 양재 기관시설

관리 직원, 양재 한식당 조리사, 양지

기관시설관리 직원(1년 계약직)

자격: 세례교인(동종업계 경력자, 관련자격

증 우대)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총무팀(02-3215-3102)

스마트사역팀 동역자 모집

모집: IT 전공자나 종사자, 코딩교육 가능

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소프

트웨어 개발자 등

문의: onnurismart@gmail.com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주 토요일(계절반학 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전공

자 또는 유경험자 우대)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아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뎀: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방: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8)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분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양재 31기 순장학교

일시: 3월 26일~6월 11일 오후 2시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등록교인, 일대일양육자 과정

수료자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두란노아버지학교 부부학교 모집

일시: 3월25일~4월15일(매주 토 오후 4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화평홀)

회비: 부부 당 200,000만원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김종철(010-5312-8149)

*계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 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이아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이아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뎀(36개월~7세) 오전 09:00 꿈방(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복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뎀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뎀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방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방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주요일 오전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How Mission(선교중보)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이아(영아) 오전 11:30 분관2층 꿈이아라는땅 오전 9:00 분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 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 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 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 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래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래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이아(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이아(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아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아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이아(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분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이아(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이아(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아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벨젤러홀 꿈이아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2017년 CGNTV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성도님들께 받은 풍성한 사랑을 한국교회와 나눕니다.

KNOCK <노커스 라이크> 영상 나눔 프로젝트

영상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의 신청을 받아 노크팀이 찾아갑니다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전도축제 등 교회 행사를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함께 만듭니다
3월 19일까지 사연 접수 마감 / 자세한 안내는 페이스북 노크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cgntv.knock



“여러 가지 장비, 시설상 영상제작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춘천 지암교회 김우경 목사, 남진우 사모)



“머릿속에 그림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효과적일지 모르겠어요” (남인천감리교회 전거성 전도사)

미디어 아카데미

촬영 / 편집부터 SNS운영까지 CGNTV의 영상제작 노하우를
지역교회 사역자들과 공유합니다.

“미디어 아카데미는 제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역교회를 위해 이런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월광교회 양희봉 집사



고향교회 섬김

일손이 부족한 고향교회를 찾아가 농사일을 돕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진심이 담긴 섬김을 통해 믿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청양 생명나무그리스도의 교회 김계하 목사

